科別 장학基金 造成활발

9個科 1億5千萬원 모금

"후배들 士氣진작에 크게 기여"

후배양성을 위한 各 學科別 장학기금 조성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學科別 同窓會의 활성화에따라 번지고 있는 이장학운동은 4個大學 9개學科에서 약3억원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1억5천여만원이 이미 조성되어있으며 學科 선배들의 뜨거운 정성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후배들의 한층진작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있는 학과는 文理大 國文學科를 비롯하여 化學·物理·行政·政外·經營·會計·農學·農生科등 9개學科로 그규모는 3천~1천만원이며, 모교재직동문들이 중심이 되고있다。

아직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物理·經營·農學·農生科등에서는 이미 이번학기동안 8명에게 1백50만원을 지급, 점차 그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 지급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보이고 있다。

특히 학과별 장학기금은 장학금 수혜에만 그치지않고 각 학과별 학회활동·학술연구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학술활동을 통한 학과발전등여러 방면에서 큰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A조우승을 차지한 柳豊雲㊧·李炳天㊨동문이 컵을 높이 치켜들어보이고 있다。 우승

「동국 70周獎學金」지급

2學期分 30명에 4백만원

東國개교70주년기념장학회에서는 금년도 제2학기장학금으로 총30명에게 4백만원을 지급했다。

이 獎學金은 지난 76년 모교의 개교70주년을 기념하여 本會에서 이를추진, 각계각층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6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利子로매학기 우수학생에게 지급해오고있다。

수혜자 평단은 다음과같다。

▲박은선(美術2)=15만원▲권수홍(英文3)=〃▲경규환(警行2)=〃▲김정수(經營3)=〃▲김대중(農學4)=〃▲육성균(電子4)=〃▲정대수(數敎3)=〃▲강현경(2部·英文2)=〃▲오정석(慶州·漢醫本科1)=〃▲권순학(慶州·經濟3)=〃▲옥창열(慶州·行政3)=〃▲윤여풍(慶州·法學)=〃▲김광열(2部·經營)=〃▲조택희(2部·貿易)=〃▲심재훈(2部·經濟)=〃▲안중익(警行3)=〃▲이옥현(法學4)=〃▲송재운(〃3)=〃▲계승환(〃3)=〃▲김창규(〃)=〃▲민문식(經營2)=10만원▲활종선(〃)=〃▲김영신(慶州·〃)=〃▲안성환(體敎2)=〃▲이선재(〃)=〃▲이주한(經營2)=〃▲허만득(體敎2)=〃▲안재민(〃)=〃▲입준(〃)=〃▲이상백(〃)=〃

〈以上 30명·4백만원〉

第5회 會長盃 테니스 마쳐

優勝

A조=柳豊雲·李炳天組
B조=柳英樹·朴경엽組
C조=尹在薰·金南煥組

제5회동창회장배쟁탈테니스대회가 지난9월26일(日) 총1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모교테니스코트에서 열려 A조의 柳豊雲 李炳天조, B조의 柳英樹 朴경엽組, C조의 尹在薰, 金南煥組가각 영예의 우승을차지했다。

이날 본회康鎭元사무차장은『그동안 제반사정으로지난 79년부터 3년째 중단되었던 동창회장배테니스대회를 다시 열게되어 기쁘다。앞으로는 매년 지속시켜 동국인의 단결과 의연한 기상을 일깨워나가자』고말했다。

이날 경기는 A·B·C조로 나누어 참가신청을 받은뒤 추첨으로 파트너를 정해 풀리그로 순위를 결정했다。

◇A조
▲우승=柳豊雲 李炳天組
▲준우승=尹範大 池慶龍組
▲장려상=李彌根 片용현組

◇B조
▲우승=柳英樹 朴경엽組
▲준우승=田泳和 吳소수組
▲장려상=金相奎 具滋秀組

◇C조
▲우승=尹在薰 金南煥組
▲준우승=金興培 吳世仁組
▲장려상=金賣洙 金慶善組

後門工事 着工

鄭相永동문이 建立희사



◇鄭동문

母校 後門확장및 移轉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이 늦어진 지난 10월11일 착공되었다。

12월초 완공예정인 이工事는 현재 講義棟 건물을 짓고있는 金剛(주) 사장鄭相永(60법학) 동문이施工, 모교에 희사하는것으로 약 3천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慶州大건물을설계한「일건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다。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될 후문은 종전의 수위실이 우측으로 이동되면서 4坪에서 9坪으로 확장되며 후문폭도 4·5m에서 7·5m로 대폭 넓어진다。

또한 정면에 8개의 타원형 계단과 함께 작은광장도 들어서며 공사후에는 옹벽에 母校精神을나타내는 부조물도 설치할계획이다。

山祭 2백명參加

설악산서 無事故 등반기원

東國山岳會(회장崔榮植) 주최, 제15회 東國산악제가 지난 16·17양일간 설악산로 朴聖昊(前모교경리과장)씨가 의전을 맡아 해발1천여m의 山上에서 山祭를 올리고, 이어 오색으로올라 설악산의 단풍 전경을 만끽했다。

산악제는 崔산악회장을 祭主로 12탑골에서 열려 산악인들의 무사고등반을 기원했다。

鄭在覺前모교총장을 비롯 동문·교직원, 산악회OB및 재학생회원등 2백여명이참가, 성황을 이룬 이번 산악제는 崔산악회장을 祭主로 12탑골에서 열려 산악인들의 무사고등반을 기원했다。

鄭在覺前모교총장을 비롯 동문·교직원, 산악회OB및 재학생회원등 2백여명이참

韓국投信

회원간 友誼다져

한국투자신탁동우회(회장 李義邦) 임시총회가 지난9월28일 오후7시 여의도P음식점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우의를더욱돈독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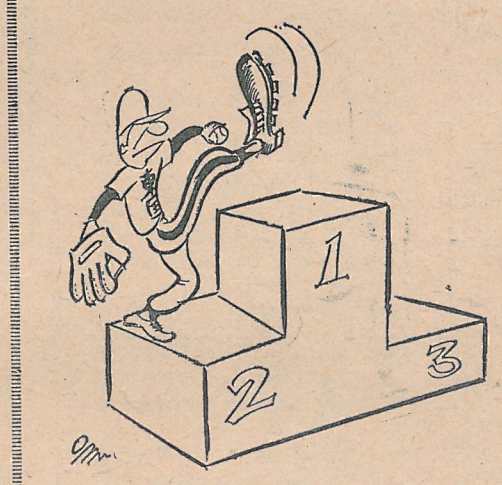
本會등서 紀念品

韓大化환영식열어

모교 야구부의 호프 韓大化군의 제27회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 역전결승 3런 수훈을 기린는「韓大化군 환영식」이 지난9월16일 오후2시 모교중강당에서 학도호국단(총학생장·尹丙鉉) 주최로 열렸다。

黃壽永총장, 본회 李英駿체육담당부회장, 재학생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환영식에서는 韓군의 공로를 기려 호국단에서 감사패, 본회및 재단서 고급시계, 黃총장이 손목시계, 본회崔載九명예회장이 金一封, 그리고 야구후원회에서 순금야구방망이(1냥)를 각각 전달 격려했다。

耕雲 鄭 漫評 東友



다음번엔 기어코…

東友會報

發行人 鄭 在 哲
印刷人 李 揆 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 8568
交換 (267) 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會費안내

會費	5천원
理事會費	5만원
常務理事會費	20만원
監事會費	50만원
會長團分擔金	1백만원
廣告料	별도청구

年

휘장업 綜合메이커
서울綜合商社
기념품·행사품·판촉물전문제조
(274) 1554~5
代表 崔 允 植

東國大學校
八三學年度 前期 新入生을 다음과 같이 募集함
大學院(晝間)

1、모집학과
①석사과정
〈인문계〉불교학과 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사회계〉법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경찰행정학과 농업경제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연극영화학과
〈자연계〉수학과 물리학과 행정학과 전자계산학과 농학과 지리학과 통계학과 가정학과
〈사연계〉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식품공학과
②박사과정
〈인문계〉불교학과 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교육학과 연극영화학과
〈사회계〉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식품공학과

2、시험과목…석사·박사과정 共히 專攻·英語·面接
3、원서교부…1982년11월8일(월)~11월20일(토)
4、원서접수…1982년11월17일(수)~11월20일(토)
5、시험일시및장소…1982년11월27일(토) 오전10시 본대학원
전화 (직) 261-3256 (교) 267-8131~9 구내215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課程및 研究課程
①行政學科…組織管理·人事·財務·計劃·都市·開發
②安保行政學科…國防·公安·防衛產業·軍事戰略
二、願書交付및接受…1982년11월2일(월)~11월12일(금)
③安全管理學科…安全管理
三、銓衡日時및場所…1982년11월27일(토) 午後二時 本行政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典…①公務員(軍·警·敎員)포함및 女學生全員에게 奬學金 支給함
②安全管理學科지망생으로서 소속부대장 또는 재향군인회장이 추천한자는碩士·研究공히 등록금액의 50%면제함。
③國家考試(司法·行政)一次 合格者에게 奬學金을 支給함。
④優等奬學金·總長奬學金·동문회장학금等 各種의 奬學特典이 있음
電話(直) 267-8574, 272-5500(交) 267-8131~9(218)

行政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課程및 研究課程
①行政學科…組織管理·人事·財務·計劃·都市·開發
②安保行政學科…國防·公安·防衛產業·軍事戰略
二、願書交付및接受…1982년11월2일(월)~11월12일(금)
③安全管理學科…安全管理
三、銓衡日時및場所…1982년11월27일(토) 午後二時 本行政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典…①公務員(軍·警·敎員)포함및 女學生全員에게 奬學金 支給함
②安全管理學科지망생으로서 소속부대장 또는 재향군인회장이 추천한자는碩士·研究공히 등록금액의 50%면제함。
③國家考試(司法·行政)一次 合格者에게 奬學金을 支給함。
④優等奬學金·總長奬學金·동문회장학금等 各種의 奬學特典이 있음
電話(直) 267-8574, 272-5500(交) 267-8131~9(218)

經營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課程및 研究課程
①經營學科…人事管理·生產管理·財務·稅務會計·市場管理·貿易學·電子情報處理
二、願書交付日時…①勞使管理學科 ②不動產學科 ③一九八二年十一月二十二日(月)~十二月二日(木) 午後五時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二年十二月四日(土) 午後二時 本經營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典…公務員·敎職員·勞組幹部및 女學生 奬學金의 一部 支給함。
電話(直) 267-8140(交) 267-8131~9(221)

敎育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및專攻…研究課程
①敎育行政學科…敎育行政·敎育經營·敎育財政
②敎科敎育學科…國語·地理·歷史·數學·倫理·美術·漢文·英語·體育·物理·化學·生物·家政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二年十一月十五日(月)~二十五日(木) 午後五時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二年十一月二十七日(土) 午後二時 本敎育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典…①公務員 授業料半額, 其他 各種奬學金있음
②中等敎師 無所持者 資格取得
電話(直) 269-8052(交) 267-8131~9(224)
※其他 電話(直) 269-8052(交) 267-8131~9(224)
자세한 것은 該當 大學院敎務課에 問議할것

準優勝의 글레를 벗자

—東大스포츠 現住所에 할 말 있다



李 丙 疇
<51국문·모교文理大교수>

優勝은 總和로 이룩되는 오롯한 勳章

82년도도 또 준우승에 주저앉은 우리의 야구요, 또 4강에 멎은 축구와 농구다。모를지기 정상을 탈환하기란 어려운 우리 東大 스포츠의 現住所다。자못 안스럽기 그지없는 부끄러운 굴레다。물론 스카우트에서부터 뒤지고 시작해야하는 우리의 발판인데다가 그야말로 千辛萬苦끝에 결승에 오르면 사못 이리떼나 만난듯 온몸을 펴지 못하고, 마지막의카드조차 쓰지 못하는 脫臺상태가 되니, 그래 우리 東大는 만년 준우승감이난 투정이 빗발같다。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사위다。딴은 高校이래의 열등감은 죄작한다。그렇다고 열없이 위축되는 사태는알다가도 모르겠다。

저들은 이른바 에이스를 나룸대로 아성을 다진 팀이라, 따라서 겨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그러나사빠는 쥐어보지도 않고 눈싸움에 짓눌려꽁무니부터 빼는 정신상태는 도시 이해가되지않는다。최선을 다해서 지는 불운이야도리가없다。일찍어 승패는 있게 마련인것이 경기다。가령 지난번 야구나 축구, 그리고 농구만해도 최강을 무너뜨리고서 왜 동급에게는 죽을쑤난 성화다。저들이라고 월등한 실력이 아닙은 자신들이 번연히 알면서도 지레 긴장한 나머지 전천후요격기가 삭죽 을못쓰다니 아예 부아 치민다。

요는 평소의 실력대로 아무 부담없이 싸우면 되는데도 공연히 상대를 의식한 플레이가 속출해서 제 기량은 커녕 그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사실 사단은 만만치가않다。그것이 꼭 결승전이나 준결승전에서 그렇다는 것은 더욱 죄고 넘어가야할 문제다。곧 숙적 東亞大와의 경기가 결승전이였다면 아마 9회의 그 끈질긴 따돌림이 나오지 못했을른지도 모른다。한편 강적 大宇와의 축구도 준결승전이였다면 그렇게 꺾지못했을른지 모른다。또한 漢陽大와의 농우도 그것이 리그전이였다면 그 시소게임은 이겼을 東大란 말이다。

이는 사소한 지적이 아니다。勝負를초월한 敢鬪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불속에서 활개 치기」에 불과한 허세다。

볼론 빅게임이면 전도 모르게 상기되는것이 일쑤다。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는 자가 자랑스런 패권자다。따라서 만년 준우승에 그치는 굴레는 이 달갑지 않은 징크스를 까뭉갠에있다。이는 선수를 비롯한 全東國人의 活氣에 달렸다고 본다。落後가 아닌 追越을 향한 패기가 넘칠때 先鋒의 보람은 탈취할수 있다。언제나 어디서나 臨戰無退가 다부질때 우리東大는 비로소 準優勝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당당한 자세가 하필이면 결판에다다라선 왜 자라 모가지가 되는지 골몰따져볼 일이다。흔히 우승을 못해보았고 더구나 칼자루를 잡아보지 못해 그렇다는 체념론까지 돌지만 천만부당이다。역사와 전통이 삭아서지 부실해서가 아니다。초반의 승승장구가 막판에는 磁場에든 쇠붙이가 되는 것은 和同에의한 끈기가 모자라서다。딴은 그 이삭으로 준우승이면 어디냐고 농을 걸지만 그것은 「도깨비턴」이란 별명처럼 한갓 수다요 놀림이다。

그러면 어째서 막판에 이르러 주눅이 드는냐가 문제인데, 결국 정신무장의 해이다。백번 싸와 99번을 이겼다해도 마지막판에 지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우리만 못한 신출내기도 우승을 하는데 우리라고 안될 리가 있냐는 다부진 각오, 그것도 전원의 일치단결이 치욕의 준우승의 굴레를 벗는 지름길이다。게다가졌다고 핀잔이나 퍼붓는 입방아가 확근이다。진 것도 분한데 그 허탈감에 빠진 선수를 나무라다니절대금물이다。서상에 지고 싶은 플레이어는 아무도 없다。다만 진뒤의 떳떳한 매너는 고쳐야 마땅하다。게임에 져도 매너에 이기는 자는 마침내는 패권을 차지할 소지가 충분한 무서운 저력임에서다。

우린를 억센 팔다리가 남부럽지 않은데 왜 응원단까지 눈치나 살피며 分散하냔 말이다。역사와 전통은 절로 안겨지는 순동이가 아니다。따라서 全東國人이 依他心을 버리고 自主的인 再武裝, 그리고 차돌같은 단결에 의한 궐기가 요망된다。욕반을 지르기에 앞서 하단못해고기 한칼이라도 보태주는 격려가 절실하다。그리고 결승전이면 全東國人이 눈사람처럼 똥쳐서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校歌를 부르고 응원가를 외치는 風土의 조성이 집정으로 요망된다。우승이란 일조일석에 이뤄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和로 다져진 마당에만 깃드는 오롯한 훈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5만 동창이 한덩어리가 되어 떠밀고 나가기를 호소한다。

□動力資源部
▲金泰坤 (65行政) =광무국장
▲안석규 (60경제) =감사담당연
▲임재근 (65화학) =자원개발국
▲임규창 (65법학) =감사담당관
▲한 현 (70행정) =등록과장

□保健社會部
▲李載寬 (66食工) =약무식품국 보건기자
▲全興國 (66식공) =약무식품국 보건기사
▲金之煥 (정외) =국립사회복지연수원서무과장

□國立保健研究院
▲安壯洙 (食工) =病毒部보건연구사
▲元敬豊 (68〃) =衛生部 保健研究官
▲金文煥 (71〃) =保健研究士
▲金準煥 (73〃) =保健研究官
▲金哲遠 (〃) =保健研究士
▲李英恒 (77〃) =保健研究士
▲蘇有燮 (80〃) =保健研究士
▲安孝煥 (80行政) =事務局行政事務官
▲李成善 (81電算) =事務局行政主事

□海運港灣廳
▲文明讚 (54정치) =廳長
▲金光得 (62법학) =船員船舶局長
▲崔章和 (60경제) =總務課長
▲金眞培 (60사학) =電算擔當官
▲金元明 (61법학) =船舶局事務官

□鐵 道 廳
▲金潤經 (52政治) =영등포역장
▲趙建行 (50國文) =서울공작창 운용계장
▲李瓚濬 (53法學) =교통공무원 교육원과장
▲金龍浩 (56法學) =부산지방철도청 관리과장
▲韓大淵 (57物理) =부산공작창 공업연구관
▲趙南遠 (58經濟) =차량국 관리과장
▲安啓鎭 (59史學) =국립서울병원 관리과장
▲李相元 (60英文) =부산보급사무소장
▲李仁馥 (60法學) =본청감사담당관실
▲金德洙 (60法學) =수원역 여객과장
▲李丙周 (61政外) =운수국 영업관리과장
▲李志順 (61數學) =경리국 회계담임
▲李弼萬 (62經濟) =기획관리실 예산1담임
▲李龍水 (65法學) =교통공무원 교육원 교수부
▲崔安雄 (70經濟) =경리국 물동계획과

□遞 信 部
▲許弼國 (60英文) =大邱 慶北체신청장
▲金卓中 (55경제) =우정국 우표과장
▲田英毅 (56사학) =우정연구소 연구과장
▲南明鎭 (58법학) =서대문우체국장
▲河弼壽 (60법학) =환금관리사무소 국고대체과장
▲박재욱 (62법학) =경리국 재산관리담당
▲趙壽昌 (63상학) =우정연구소 102분소 주재실장
▲이주백 (법학) =서대문우체국 조리계장
▲정번창 (법학) =구리우체국서무계장
▲金溶國 (62법학) =우정국
▲金鎭淳 (64법학) =서울체신청 전기통신과장

□韓國道路公社
▲沈燦燮 (70행원) =理事
▲申景完 (60경제) =光州支社長
▲金在鎭 (63경제) =原州도로관리사무소장
▲金喆權 (65행정) =기전부차장
▲金호연 (64경제) =경리부과장
▲柳原植 (64경제) =水原支社과장
▲朴先國 (57경제) =서울영업소장
▲李曾煥 (63국문) =비상계획실 과장
▲李炎鎔 (63정치) =서울영업소
▲金文旭 (69경제) =영업부계장
▲文明德 (72경영) =기획관리실 계장
▲尹仁相 (72경영) =영업부계장
▲田炳益 (63경제) =水原支社
▲曺永采 (79조경) =보수부
▲徐時英 (77국교) =수원도로관리사무소
▲金炫東 (79토목) =기획관리실
▲洪귀선 (63국문) =용인영업소장
▲宋승익 (72임학) =대구도로관리사무소
▲金永斗 (78전산) =전산실
▲兪泰浩 (78토목) =건설사업부
▲崔在德 (74농학) =수원지사
▲禹漢基 (80건축) = 〃
▲김병욱 (69법학) =영업부
▲김용조 (81전원) =전산실
▲윤주용 (81전원) = 〃

□韓國電力公社
▲문영일 (57政治) =경비단장
▲오정석 (58化學) =사옥건설사무소 기획관리담당
▲박영태 (58經濟) =안전관리부 비상계획과장
▲조중건 (58法學) =동래지점장
▲오재권 (59法學) =영업부 관리과대리
▲김남진 (60經濟) =안전관리부 비상계획과 대리
▲이재원 (61法學) =원자력건설부 용지과 대리
▲송원규 (64經濟) =안전관리부 비상계획과 대리
▲윤행순 (65行政) =총무부 인사제도과장
▲이정일 (65法學) 송변전건설토목계장
▲김병구 (68法學) =자재부 외자1과 대리
▲양태종 (69經營) =경리부 증권과
▲신정인 (69農學) =기획관리부 대리
▲허광명 (70經營) =경리부 재평가담당역 대리
▲홍승복 (71行政) =경리부 회계과
▲염진상 (72法學) =공보실계장
▲이대환 (72法學) =총무부 교육훈련과 대리
▲장승영 (73法學) =총무부 인사제도과 대리
▲김은오 (73行政) =비서실대리
▲오세형 (73行政) =자재부 외자수급과 대리
▲권승호 (74電氣) = 송변전건설건축과



▲정홍섭 (76英文) = LNG부 외자과대리
▲최종욱 (76建筑) =건축2과
▲강전근 (77電子) =조사부전산기획과
▲윤병환 (77建筑) =건설부
▲권기철 (78行政) =영업부영업계획대리
▲김관환 (79建筑) =건축1과
▲이완기 (79經營) =기획관리부
▲박강수 (79行政) =연료부조달과
▲김태영 (79建筑) =건설부
▲김용일 (79建筑) =건축2과
▲황우엽 (80經營) =기획관리부
▲김오희 (80法學) =총무부 충원과
▲이규철 (80法學) =총무부 인사제도과
▲심대섭 (80經營) =자재부 외자1과
▲서용수 (80電氣) =건설부
▲오동원 (81法學) =경리부 재산정리과
▲최외근 (81行政) =경리부 세무과
▲함익규 (82行政) =송변전건설서무과
▲강주덕 (經營) =LNG부 도입과

□土地開發公社
▲柳根昌 (50전문) =社長
▲沈勝雄 (58경제) =업무부장
▲吳世觀 (61경제) =경북지사장
▲鄭振基 (62법학) =비서실과장
▲吳鍾奎 (65경제) =忠南支社次長
▲周기永 (67법학) =비서실과장
▲李敦熙 (69商學) =業務部係長
▲文賢秀 (商學) =全北支社課長
▲徐晟斗 (72경영) =經理部係長
▲金基洙 (75법학) =全南支社係長
▲徐潤鎬 (77경영) =業務部係長
▲金洛相 (79토목) =忠北支社
▲金成泰 (79토목) =江原支社
▲염기헌 (79법학) =서울支社
▲孫景重 (79토목) =借款事業部
▲姜泰昊 (80조경) = 〃
▲李注澤 (80건축) =總務部
▲金松漢 (80전기) =開發部
▲梁永模 (80農經) =調査部
▲鄭萬模 (80토목) =서울지사
▲李昌淳 (80토목) =忠北支社
▲柳寅出 (81법학) =忠南支社
▲徐昌源 (81법학) =京畿支社
▲劉 政 (國敎) 調査部

□産業經濟技術연구소
▲김수현 (71 史學) =정보자료실 책임연구원
▲김승배 (76電氣) =특허정보실 연구원
▲박찬진 (80電子) =전산실 연구원

□林木育種研究所
▲郭正勳 (62經濟) =임목육종연구소 서무과장
▲安昌永 (64林學) =임업연구관
▲李成奎 (71임학) =동부육종장 임업연구사
▲張錫玉 (73임학) =남부육종장 임업연구사
▲鄭德英 (76임학) =임업연구사
▲李文鎬 (77임학) = 〃
▲辛在敏 (82임학) = 〃
▲趙南星 (82임학) = 〃

□第一生命保險
▲洪冠植 (52정치) =監査室監査役
▲柳根永 (66법) =安全管理室長
▲南重心 (62정치) =총무부장
▲崔 燦 (63경제) =北部영업국장
▲李殷世 (68상학) =단체보험부차장
▲李炳光 (69연영) =전산개발과장
▲朴道遠 (69경영) =전산운영과장
▲金東讚 (65경제) =장충영업소장
▲全炳德 (60법학) =보험금과대리
▲金東根 (62경제) =보전2과대리
▲尹益洙 (71영문) =중부영업국대리
▲許萬壽 (71경영) =투융자부대리
▲全河運 (65상학) =안동영업국참사
▲梁文錫 (70상학) =전산개발과참사
▲崔容培 (78임학) =上仁川영업소장
▲金南雄 (70상학) =소사영업소장
▲金圜子 (72경영) =전산운영과참사
▲李永壽 (80사학) =인왕영업소
▲朴鎭緖 (81통계) =계리인실
▲崔相仁 (80통계) = 〃
▲朴醒坤 (78화공) =투융자부
▲孫永斗 (81공경) =감사실
▲韓鍾錫 (81행정) =인천영업국
▲閔炳權 (82정외) =인사과
▲金局權 (82경행) =투융자부
▲鄭文鎭 (82정외) =남수원영업소
▲徐廷權 (식공) =방배영업소
▲金榮星 (78정외) =남인천영업소
▲李在賢 (80전자) =전산실

□흥국생명보험
▲鄭慶鎬 (62경제) =영업지도부장
▲柳國衡 (64商學) =재산운용부장
▲孫萬鍾 (67통계) =전산실장
▲金昌義 (69경영) =교육부대리
▲曺錦煥 (70회계) =북부영업국관리과장
▲南廷天 (70상학) =경기영업국관리과장
▲楊聖鍾 (71경영) =교육부대리
▲南啓東 (71林學) =보험금과주임
▲金銀榮 (72법학) =종합기획실조사과장
▲李榮馥 (72警行) =영등포영업소장
▲尹泰鎬 (74법학) =재산운용부부동산과주임
▲尹禎鎭 (75〃) =종각영업소장
▲黃國煥 (76政外) =營業企劃課主任
▲金承泰 (76〃) =大林營業所長
▲李 松 (77貿易) =貞洞營業所長
▲金相鏞 (78經濟) =東富平營業所長
▲柳圭衡 (78農經) =上道영업소장
▲高判錫 (79法學) =숭인영업소장
▲金根成 (79統計) =忠正路 영업소장
▲洪觀植 (80工經) =신문로영업소장
▲朴相潤 (80經營) =총무부 경리과
▲申載亨 (80統計) =숭의영업소장
▲金明源 (80農經) =시흥영업소
▲朴明錫 (81食工) =총무부 인사과
▲金在海 (81農經) =강남영업소 총무
▲金南泰 (82國文) =종합기획실 홍보과
▲金碩玄 (82農經) =安國營業所 總務
▲白基石 (82行政) =東部營業局 總務
▲尹東鉉 (82史敎) =敎育部 敎育開發課
▲李庭勳 (82統計) =保全部 保全課
▲高芳哲 (82史敎) =契約部 契約課

嶺南지역 體典盛了

스포츠통해 東國人의 團結과시

嶺南지역 東國人에게 母校愛와 東友愛를 일깨우고 상호협동 단결하는 美德을 심어주기 새탄생을 보게된 「제1회 同窓會長銀盃쟁탈 嶺南동문親善체육대회」가 지난 10월24일 모교경주대학운동장에서 동문·교직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려 浦項지회가 영예의 첫 우승銀컵을 안았다。

이날 동회 鄭在哲회장은 「나는 열정을 쌍아왔다」고 朴忠煥상무이사가 대신 읽은 축사에서 「개교76주년의 母校는 해방후 줄곧 大學스포츠와 이나라 體育史에 빛나게 東國人의 活力과 기상을 더욱 드높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慶州지부 鄭俊和회장은 大會辭를 통해 「서로 깊은 우의를 다지며 발전하는 훌륭한 氣風으로 本 大會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어 金仁鴻경주대학장도 격려사에서 「이대회가 東國人들의 和合·슬기·지성의 광장이 되었으면한다」고 당부했다。

慶州·大邱지부와 金泉·浦項지회, 浦項製鐵등우회등 총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金德洙동문 진행으로 열린 이날대회는 추구와 줄다리기 두종목에 걸쳐 힘과技를 겨뤄, 축구우승은 大邱지회가 차지했다。또 줄다리기 우승도 포항제철이 차지, 이번대회의 두종목우승컵이모두 浦項지역으로 갔다。

本會는 同大會에 우승銀컵(50만원)을 제작, 지원하는 한편 본회 朴忠煥상무이사 康鎭元사무차장이 현지에 내려가 격려하고 귀경했다。

同大會는 경주지부·경주대학교호국단주최, 경주대학주관으로 열렸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주대학에서 제공한 접실을 이용 崔樂俊건설과장의 안내로 경기도 한뒤 휴식시간을 이용 崔주대학 시설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天安지회 현판식

임원개선 회장에 尹昌求동문

天安·天原郡지회(회장=尹昌求)현판식이 지난 9월19일 오전11시 천안시내 대흥동121~4번지 明電社(金春浩동문 경영)에서 있었다。

尹회장을 비롯 韓仁燮·孫진욱 尹世徹동문등 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있은 현판식에 이어 회원들은 成純直 宋祥鉉 權運玉 재학생 개그맨 金亨坤군의 사회로 리틀미쓰의 노래·피아노반주·부채춤·장고춤등에이어 회원들의 장기자랑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不具의 역경을딛고 지난 81년 佛敎大를 수석졸업했던 方貴姬동문과 인기탈랜트 張美姬(불교4)양이 자랑스러운 후배로 소개되었는데 두 후배는 『선배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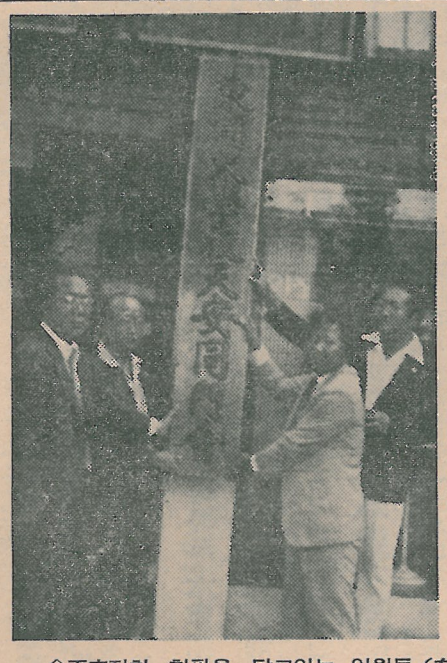
이날 프로그램은 재학생 개그맨 金亨坤군의 사회로 리틀미쓰의 노래·피아노반주·부채춤·장고춤등에이어 회원들의 장기자랑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不具의 역경을딛고 지난 81년 佛敎大를 수석졸업했던 方貴姬동문과 인기탈랜트 張美姬(불교4)양이 자랑스러운 후배로 소개되었는데 두 후배는 『선배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佛寺에서 단합야유회를 갖고 會發展에 적극 同參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동회는 지난 8월 총회를 갖고 임원진을 개선했는데 첫사업으로 현판식을 가졌다。

▲회장=尹昌求(64상학·海平洋行대표)
▲부회장=李明雨(61국문·복자여고) 손진욱(63불교·낙농업)
▲감사=李奭根(65농학·천안농고) 高相萬(65국문·천안여고) 柳福鉉(60농학·천안농고) ▲총무=金春浩(76전자·천안농고) ▲간사=洪龍杓(71물생·천안농고)



◇天安지회 현판을 달고있는 임원들 (左로부터 孫진욱, 韓仁燮, 尹昌求, 尹世徹동문)。

동아제약모임 會活性化방안논의

동아제약동우회 임시모임이 지난22일오후7시 시내 장충동P음식점에서열렸다。

회원2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모임은 그동안 정체되어온 동회의 활성화를통해 회원간의 상부상조는물론 모교발전에 기여할것을 중점논의했다。

이날모임은 특히 본부동창회의 역점사업인 동국인명록제작시 동회회원들의누락이없도록 회원명단을 일일이 점검하는 한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惠東會의 밤」

1백여명 參席 友誼나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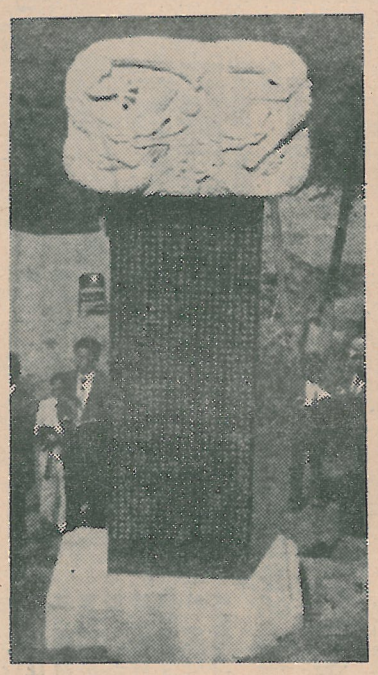
「惠東會의밤」행사가 지난 10월5일 오후6시 市內앰버서더호텔2층 대연회장에서 회원및 가족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다채롭게 베풀어졌다。

惠東會(회장=李喜春)창립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제1부 음악의 밤, 제2부 무용의 순서로진행되었으며 이자리에서는모교 연영과학생들이 제작, 제27회 청소년영화제 최우수상을 받은 「交叉地帶」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날 준비위원장인 金殷夏(국회부의장) 동문은 인사에서 『사회 각분야에서성숙한 活動을 하고있는 우리들에게 「동창의 인연」은더없이 소중하다。언제어디서든 영원한 친구들로서 변함없는 友情을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白性郁박사 塔碑제막

楊州장흥 大勝寺서 功德기려 本會서 建立



◇本會에서 세운 白性郁박사 塔碑。

本會건립 「東國大學校總長 白性郁博士塔碑」 제막식이열린 1주기를맞아 지난10월5일 오전11시 趙明基前총장 본회崔載九명예회장과 南基一사부국장을 비롯한 내외빈사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장흥면소재 대승사에서 열렸다。

이날제막된 塔碑는 본회 회장(2·5·6대)모교총장(2대·재단이사장(15대)을 지내며 東國발전에공이 큰白博士의 功德을 기리자는會의 발의로 세워졌는데 塔碑건립비용(2백만원)을 본회에서 부담했다。

白博士유골이 안장된 리탑옆에 세워진 이 塔碑는 높이 2m30cm、폭95cm 크기로 趙明基博士가 碑文을 작성하고 서예가인 如初 金膺顯(49·전문)동문이 글씨를 썼다。

塔碑는 모교의 복된터전을 닦은 白博士의 一代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末尾에 「東國大學校同窓會 謹竪」이라고 기록되었다。

한편 이날 제막식이 끝난후 오후3시부터는 故人을 추모하는 大法會가 안국동 曹溪寺에서 열리었다。

東國大學校總長 白性郁博士 塔碑文

우리東國大學校의 복된터전을 오늘에 굳히신 白性郁博士는 西紀1897年陰曆8月19日 서울蓮花坊에서 白潤基씨 長男으로 現世하셨다。

壺洞學校를 마치자 書堂에서 漢文을 공부하시다가 1910年7月出家하여 奉國寺 崔荷翁大禪師를 恩師로 得度하셨다。그뒤 7年동안 閔慶金龍寺佛敎講院에서 四敎科와 大敎科를 履修하시고 1917年京城佛敎中央學林에 入學하여 新學問에 着眼하셨다。

1919年己未獨立運動을 契機로 母校는 閉鎖되고 日警은 暴擧하니 中國上海로 脫出하여 臨時政府에 參與하여 資金通信등 密使로 內外를馳走하셨다。

1920년 뜻을 세워 上海에서 渡佛하여 파리 보베고등학교를 수료하시고 1922년 독일 빌스불룩大學철학과에 入學하여 1925년10월 佛敎純全철학이란 論文으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셨다。그學位 논문은 당시 佛敎誌에 발표되었으며 많이짓고 밝은 해와같이 侍奉을 다 잘하기를 濟度發願이라하며 祝福을하는것이 儀式化하셨다。그리고 說敎때에는 當利에 진심을 내지말고 진心을 닦아야 成佛하느니라는말과 또는 現在現在에眞實한면 未來未來는 完成되느니라 하셨다。

日課中에는 災殃을 消滅하고 所願을 成就한다는 念願으로 大方廣佛華嚴經을 一心으로 唱誦을 反復하셨다。

그밖에 20여편의 논문과 합께 先生의 文集에 수록되어 있다。1926년4월 中央佛敎專門학교 교수에 취임하시어 哲學 불교학 獨逸語등을 강의하시고 우리民族이 가질 바 자세와 우리國家의 장래를 論한바있어 청중은 直覺하고 선생을 추앙하였다。

그러나 日警의 暴壓이 日加月增하자 一九二八年九月 敎職을떠나 深山幽谷에 隱遁修道함이 大事를 成就할것이라 決斷하고 全財產을 奉恩寺에 獻納하고 單身으로 金剛山安養庵에 駐錫하여 오로지 修行에만 힘쓰셨다。斯爾의 前後에는 반드시 發願詞가 있었으니 天上天下 世界衆生이 다 서로 싸워서 罪를짓지말고 그 바라는 한마음을 부처님前에 歡喜心을내어 福을 많이짓고 밝은 해와같이 侍하여 信行의 修業을 다시 繼續하셨다。先生의 發願祝福과 修行儀式은 前과같이 부처님 侍奉을 밝은 해와같이 하라 하셨다。

徒弟들이모여 金剛經을持誦하고 彌勒佛을 提唱함은 莊嚴한 日課였으나 다만 大衆의繼續이어려워 牧場을 經營한때도 계셨으니 여기에서 人生의格調높은 敎道를 履行하고 人格과 國格의 哲理를 論說하셨으니 서울二村洞自宅에서 날을對할때는 주는마음으로 未安은 마음에두지말고 後悔할일은 적게하고 날들은聖人으로 여기도록 마음을 다듬으라는 親筆遺書를 남기시고 一九八一年陰曆八月十九日八十四歲로 怡然히 不動하시자 大學葬으로모시고 楊州大勝寺南麓에 建塔하여 舍利를 奉安하였다。貴은 水原 法名은 性郁 堂號는 無號山房 塔號는 白日遍照이고 諡號는 聖光尊者이다。

一九八二年九月十六日

東大 同窓會 謹竪

勤勞奬學舍 선후배의밤 留任돼

회장 李信徹동문

「勤勞奬學舍 선후배의 밤」이 지난22日오후7시 회원·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모교 교수식당에서 열려 선후배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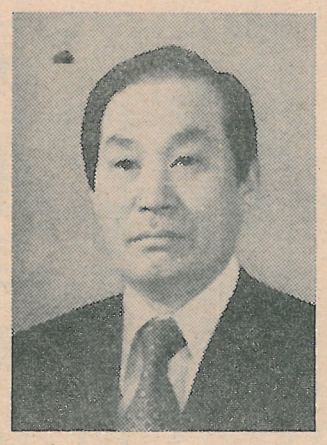
이날 모임은 30여년 전통을 쌓아온 근로장학사의 현황보고에 이어 원선출에 들어가 李信徹현회장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이날 회원들은 연회를겸한 간담회에서 『우수한 숨은 生育成과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라는 본래 목적에 더욱 정진할것』을 다짐하기도했다。

61年經濟科정례회 慶弔事강화키로

61年經濟學科동기회(회장=金炯成) 9월모임이지난달 24일 오후7시 풍전호텔2층에서 열렸다。

국회 豫決委員長 鄭在哲 拆日회장



◇본회 鄭在哲회장이 豫決委員長을 끝으로 다시 국회에 나가게 되어 다시 말았다.

本會 鄭在哲 (52정치) 회장이 지난해에이어 다시83년도 정부예산안을 다루게될 國會 豫算決算 委員長으로 선출되었다.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우리經濟최대의 당면과제를 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갈 막중한 책임을맡은 鄭동문은 經濟安定을통한 국민생활보호에 전력할 것이라고말한다.

『내년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에 초점을맞춰야 합니다。公共요금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고 重化學투자에밀려 소외되었던 農業과中小企業에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것입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관건을 밝히고 통。

5·16이후 관계에 투신한 이래 보사부 공보관、전매청 차장、재무부 기획관리실장、산업은행 부총재、신용보증기금이사장、한일은행장등 재정금융분야에서만 20여년을 섭렵한 관록이 예결위원장으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뒷받침해주고있다。

원만한 對人관계로 발이넓은 鄭동문은 차분한 성격에다 매사에 빈틈이 없는것도 특징。지난해부터 제11대 本會 會長으로 추대되어 同窓會를 이끌고 있으며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장학사업의 확대실시、「東國人名錄」발간등 本會 발전을위해 노력을 아끼지않고 있다。

淑明女大 출동창회장을 맡고있는 부인 錢金周여사와 1男2女를두고 있으며 취미는 골프。

"國民生活 보호에 최선 다해" 本會發展 위해서도 東奔西走

『투자효율이 의심된는 규사업이나 「군납性예산」은 사정없이 도려낼 것은 물론 금년에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최선을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민정당 창당발기인으로서 당내 재정위원장등 중책을 맡았던 鄭동문은 당내 제1의 재정통인 만큼 재정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鄭동문은 지난 65년에 入社、20년여를 사회부에서만 봉직해왔다。

日譯詩集 출판기념회參席



徐廷柱 (38中佛·詩人·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日本에서 출판된 자신의 시집 「朝鮮민들레꽃의 노래」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위해 11월5일 渡日。

지난34년부터 74년까지 40년간의 작품중에서 86편이 수록된 이 일어판시집은 白川豊·鴻農映三씨에의해 번역되어 조樹社에서 출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日本文人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하고 우리 시의 소개에 힘쓰겠다』고 말하는 徐동문은 『나와 한국의 현대시』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문학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徐동문의 시는 지난 78년 자유중국에서 「徐廷柱시집」으로 번역 소개되었고지난해 美國「쿼터리리뷰 오브 리터러천」에 51편이 실렸으며 프랑스에서도 올해안으로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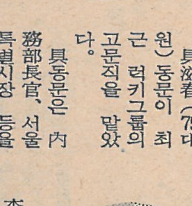
럭키그룹 고문에 취임



具滋春 (75대 원) 동문이 최근 럭키그룹의 고문직을 맡았다。

具동문은 內務部長官、서울특별시장 등을 역임했다。

映畵人協 分科위원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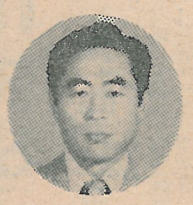


崔琴桐 (38中佛) 동문이 지난 9月 映畵人협회 시나리오分科위원장에 선출됐다。

崔동문은 36년東亞日報신춘문예에 시나리오 「愛戀頌」이 당선된 이후 40여년간 시나리오 작가 崔琴桐동문

同門동정

한국證券電算 理事로



鄭洛敎 (61법학) 동문이 지난10월7일의株主총회에서 한국證券電算(주) 理事에 선임되었다。

25년여를 監査院에 봉직해오다가 지난76년 한국증권거래소로 轉職했던 鄭동문은 同거래소 기획관리실장、재무부 기획관리실장、산업은행 부총재、신용보증기금이사장、한일은행장등 재정금융분야에서만 20여년을 섭렵한 관록이 예결위원장으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뒷받침해주고있다。

원만한 對人관계로 발이넓은 鄭동문은 차분한 성격에다 매사에 빈틈이 없는것도 특징。지난해부터 제11대 本會 會長으로 추대되어 同窓會를 이끌고 있으며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장학사업의 확대실시、「東國人名錄」발간등 本會 발전을위해 노력을 아끼지않고 있다。

淑明女大 출동창회장을 맡고있는 부인 錢金周여사와 1男2女를두고 있으며 취미는 골프。

釜山市 中區廳長에 영전



金萬淵 (62정치) 동문이 지난9월20일字로 釜山市감사실장에서 釜山中區廳長으로 영전했다。

매사에 철두철미하다는 평을 받고있는 金동문은 『평소의 신조인 「성실 근면 정직 공정」을 지표삼아 살기좋은 지역발전에 최선을다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金동문은 지난61년 국가4급공채합격으로 공직에 발을딛어 경남도감사과장、부산시동구·중구·영도구부청장、市본청의총무과장 기획담당관등의 보직을 거쳤으며 지난70년12월엔 제2회모법공무원 표창을 받기도했다。金동문은 현재 부산지부 부회장을 맡고있기도하다。

外換銀 光化門개설 위원장에



金容聖 (63정치) 동문이 한국外換銀行 光化門간이예금취급소 개설준비위원장에 부임했다。

金동문은 지난69년 外換銀行에 入行하여 심사1부차장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관리업체인 正자가 되고있다。

재학시 농림대학생회장、충남도대학생4H연합회장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온 高동문은 농촌진흥청등에 재직하기도 했다。

東洋프라스틱(주)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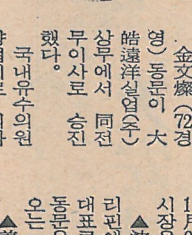


대표이사 李濟坤 동문 전무이사 李興雨 동문

東進프라스틱(주)의 李濟坤(68경제)、李興雨(68일학) 동문이 東洋프라스틱(주)를 새로 설립하고 李濟坤동문이 대표이사、李興雨동문이 전무이사에 각각 취임했다。

프라스틱 업계에 뒤어들어 중견의 위치를 굳힌 두동문은 새회사 성장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사무실은 청량리 미주상가4층으로 전화는 ㉾558 1~5번이다。

大호원양실업 專務理事승진



金文燦 (72경영) 동문이 大皓遠洋실업(주) 상무에서 同전무이사로 승진했다。

국내유수의원양업체로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同社는 3백톤부터 3천5백톤급 3백톤부터 17척을 가지고 있다。

金동문은 또 냉동업체인 (주) 대호냉동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BBS부회장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다。

大田 선화회 회장에 李 源 大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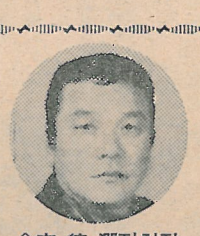
大田 선화회 회장에 李源大 씨가 선임되었다。

牙山郡 體育大會 盛了

제15회맞아 2백여명 參席



◇牙山郡지회가 주최한 제15회 郡內 직장 대항 체육대회 모습。



◇李德潤지회장

牙山郡동우회 (회장=회장=李德潤) 가 주최하는 郡內직장대항 제15회배구대회겸 제7회테니스대회가 지난달 17日 李회장을 비롯한 회원30여명과 관내 기관장·선수등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온양온천국민학교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牙山郡동우회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68년부터 개최, 15회째를 맞은 同대회는 郡內 대잔치로 뿌리를 내려 참가수가 매년 늘고있는데 금년에는 배구6·직장테니스7·個人테니스8개팀이 참가했다。

이날대회는 金석환동문 사회로 李회장의 대회사 우승기반납, 선수선서, 경기순으로 진행되어 시종 화기애애한가운데 열렸으며 同지역 국회의원인黃明秀 (59정치) 동문이 천막과타올을 기증하기도했다。대회를 마친뒤 회원들은 洪常憲동문이 경영하는 남서울회관에서 임시총회겸 평가회를 가진다음 장기자랑등으로 대회준비피로를 풀었다。한편 본회는 동대회를 격려하기위해 申寬浩간사가 현지로출장, 금일봉을전달했다。

※대회성적

◇배구 ▲우승=영인국교 (2연패) ▲준우승=온양경찰서 ▲3위=아산군청

◇직장테니스 ▲우승=아산군농협 ▲준우승=온양경찰서 ▲3위=아산군청

◇테니스개인전 ▲우승=송원승 채수철組 ▲준우승=이한종·김기석組 ▲3위=허용운·강재일組。

우리모두 精誠모아 알뜰名簿 만듭시다

—會員카드 11月30日까지 연기접수

주변同門도 빠짐없이 提報요망

「東國人名錄第5輯」發刊작업이 많은 同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당수 同門들의 現所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알찬 會員名簿제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會員카드」를 보내지 않은 同門이 있읍니까? 또 자신이 알고있는 東國人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분이 있읍니까? 現在 貴同門의 주변에 散在해 있는 同門들의 所在나 職場、또는 수첩에 기재되어있는 電話番號만이라도 本會 事務局에 꼭 알려주십시오。이를 확인、名簿에 登載하는 것은 물론 東友會報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겠읍니다。

本會에서는 한사람의 會員이라도 빠뜨리지 않기위해서 「會員카드」송부마감을 오는 11월30일까지 연기하고 계속접수중에 있읍니다。우리 모두가 조금만더 同門찾기에 협력해 준다면 명실상부한 名簿를 만들수 있읍니다。거듭 同門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회원들을 빠짐없이 기록,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서울 중구 필동3가26

동국대학교동창회 사무국

1982年11月 日

東國大學校同窓會

제5집 受中!

末에 발간됩니다。
주소·직장·전화번호
이 명부는 6만東
긴밀하게 엮어줄

를 비롯하여 年度別
을 받고 있읍니다。

031—203번납입
6
무실
67—8131(교)465
會事務局

원로 시나리오 작가 崔琴桐(38中佛) 동문이 지난 9月 映畵人협회 시나리오 分科위원장에 선출됐다.

崔동문은 36년東亞日報신춘문예에 시나리오「愛戀頌」이 당선된 이후 40여년간 작품생활을 해왔으며 예술문화윤리위 부위원장등을 역임했다.

中外製藥회장에 추대돼

李宗鎬동문



李宗鎬(58법학) 동문이 대한中外製藥사장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同社는 中外商社 中外機械 등 계열회사의 경영을 책임운영제로 전환하기 위해 李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農振公 檢査室長활약

河權浣동문

河權浣(57법학) 동문이 農業振興公社 검사실장으로 우리나라 농업진흥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2천5백여직원을 거느린 同公社의 감사업무를 맡고있는 河동문은 온후하면서도 업무에있어서는 날카롭다는 評을받고 있다.

지난 57년에 入社, 同公社에서 25년여를 봉직해온 河동문은 검사실검사역 관리부과장 영산강사업소차장등을 차례로역임했으며, 지난2월엔 국무총리공로표창을 받기도 했다.

內務部 특수지역과장으로

鄭泰洙동문

鄭泰洙(73행원) 동문이 內務部행정관리담당관에서 특수지역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시 동구청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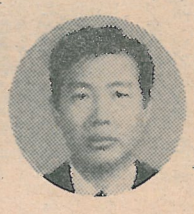
柳在川동문

▲柳在川(60경제) 동문이 인천직할시동구청장등 일선지방포책임을 맡아왔으며, 本店계리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住宅銀行

▲白南伸(54영문) ‖기획부조사역으로전임。白동문은 住宅公社근무중 지난67년同行창립때 轉職, 저축부차장과 암사동·영동·光州지점장과 서부부장등을 역임했다。



▲林南圭(56경제) ‖증권부장으로 전임。林동문은 지난74년 富平지점장 이래 大田·노량진·종로6가·佛光洞지점장등 일선지점포책임을 맡아왔으며, 本店계리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韓一銀行

▲宋寬憲(62법학) ‖감사실차장겸 검사역으로 전임。宋동문은 영업부차장, 충주지점개설준비위원장을 지냈다。

▲姜德先(69경제) ‖서초분지점에서 심사부 심사역(차장)으로。



京鄕新聞연예레저부장에

吳翊煥동문

吳翊煥(64법학) 동문이 京鄕新聞사회부 차장겸 연예부장을 거쳐 지난 年末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상임감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韓一銀行

▲林南圭(56경제) ‖증권부장으로 전임。林동문은 지난74년 富平지점장 이래 大田·노량진·종로6가·佛光洞지점장등 일선지점포책임을 맡아왔으며, 本店계리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住宅銀行

▲白南伸(54영문) ‖기획부조사역으로전임。白동문은 住宅公社근무중 지난67년同行창립때 轉職, 저축부차장과 암사동·영동·光州지점장과 서부부장등을 역임했다。

▲鄭泰洙(73행원) 동문이 內務部행정관리담당관에서 특수지역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시 동구청장으로

柳在川동문

▲柳在川(60경제) 동문이 인천직할시동구청장등 일선지방포책임을 맡아왔으며, 本店계리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京鄕新聞연예레저부장에

吳翊煥동문

吳翊煥(64법학) 동문이 京鄕新聞사회부 차장겸 연예부장을 거쳐 지난 年末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상임감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韓一銀行

▲林南圭(56경제) ‖증권부장으로 전임。林동문은 지난74년 富平지점장 이래 大田·노량진·종로6가·佛光洞지점장등 일선지점포책임을 맡아왔으며, 本店계리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住宅銀行

▲白南伸(54영문) ‖기획부조사역으로전임。白동문은 住宅公社근무중 지난67년同行창립때 轉職, 저축부차장과 암사동·영동·光州지점장과 서부부장등을 역임했다。

▲林南圭(56경제) ‖증권부장으로 전임。林동문은 지난74년 富平지점장 이래 大田·노량진·종로6가·佛光洞지점장등 일선지점포책임을 맡아왔으며, 本店계리부장을 역임하

東友會 스크린

◇崔榮植 회장

◇林 駉 부회장

◇鄭鎭永부회장

◇林信喆부회장

◇吳仁燦동문

◇都昌鎬동문

◇李仁楨동문

◇吳永福총무

東國山岳會

山岳部 OB로 구성

東國山岳會는 쉽게 大學山岳部 OB회로 이해하면 된다。

創立이전의 재학생활동은 결국 동국산악회의 활동과 구별해서생각할수는 없다。

大學산악부 단일팀으로서는 韓日國交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64년5월 日本福岡알파인클럽초청으로 국내대학 최초의 해외원정인 北알프스 穗高山(3,190m) 登頂을 무사히 끝냈고, 67년 1월에 역시 九州大學 탐험부로부터 교환조건으로 초청을 받아 北알프스를 등정해냈다。

本格活動 57년부터

모교의 山岳部가 發足한 것은 1946년의일。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1957년 崔榮植(現회장) 동문등에 의하여 再發足한때부터 시작된다。

모교山岳部는 58년 주최 제8회 登行경기대회에 처음出戰하여 入賞한것을 비롯 이후 每年 同大會에서의입상과, 권영시 정진영 백병일 임신철등이 국내주요 難코스登頂을해내 大學산악부의 先走者로군림하게된것이다。

68年에 정식創立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山岳활동의 이론적연구와 기술을 연마하는 한편 산악에대한 계몽과 지도및 등반조난구조등의 사업을 벌이기위해 68년9월30일 OB 20명, 재학생20명이 모여 創立한것이 오늘의 東國山岳會가 됐다。

創總에서는 사업추진을위해 5개부서를두고 그임원을 선임했는데 초대회장에 洪鳳來、부회장에 林燉 崔榮植、이사에 李載昌 鄭鍾 吳碩奎 閔完植 宋赫、총무부장에 金敏秀、기획관리부장에 李相鵬、학술부장에 林昌羽、등반기술부장에 劉昌瑞、산악부장에 金恒鎭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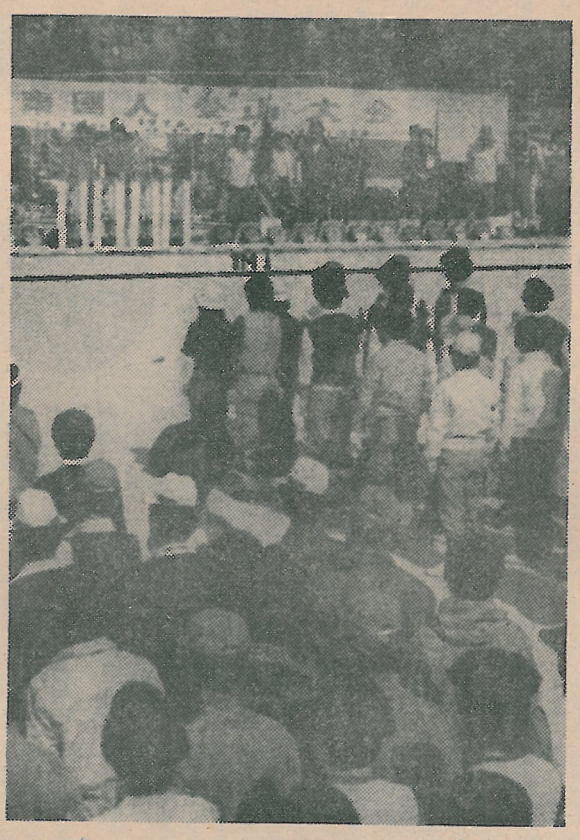
이렇게 출범한 東國山岳會는 대학산악부의 저력이 뒷받침이 되어 그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막강함을 자랑했다。

추렌히말과 닐기리北峰 원정에 吳仁燦동문、마나슬루 1·2·3차에 걸쳐 서충길동문、안나푸르나 遠征과 마칼루정찰의 邊裕根동문、에베레스트와 五大洲최고봉 원정의 都昌鎬동문등은 우리나라의 젊은 해외원정史에 單一팀으로 구성되지않은 대부분의 원정에서 東大OB들의 빛을발했다。

마나슬루서 기염토해

이러한 경험과 사실은 곧 東國산악회의 저력이되어 80년 마나슬루 원정에서 결실을 보게되었다。東大OB들의 마나슬루 登頂은 당시 해외원정의 꽃은 실패로 국내산악계의 큰 이슈였던 팀웍과 원정성공여부와의 관계를 내산악계에 새로운 章을 편 또 하나의 등반은 土旺瀑하단 초등이다。당시 등반熱이 加熱되면서 아직도 未登인채 남아있는 土旺瀑에 대한 도전을 생각해 보지 않은 클라이머는 없을정도였다。

76년1월 대학山岳部 申仁燮주장당시 약20일간의 투트공작끝에 都昌鎬 이동윤 2명의 OB대원이 하단에 성공, 土旺瀑등반 가능성의 표를 연것도 큰 개가였다。



◇제7회 東國人 登山大會（1976년 4월19일）의 개회식광경

68년 創立…막강의 先後輩

희양산암장루트개척

한편 東國山岳會의 母體가되고 있는 재학생산악부는 64년6월 희양산암장루트를 개척했고, 지금도 매년 전통적인 年例행사로서 OB·재학생이 이암장에서 암벽훈련등반을 해오고 있다。

희양산 암벽초등은 李구용 姜성윤 李영우 金재경 金홍배 金진주등이 해낸 코스難易度Ⅳ급에 전장 2백20m9피치의 희양산암장코스중에 긴코스이다。

각종山岳행사 주관

현재 회원수는 OB및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을 포함, 2백여명에 이른다。교직원회원은 山岳부창설이전의 산악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해서 3년이상의 山行경력이 있으면 入會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同會는 창립후 매월 월례등반을 계속해오고 있고, 또 매년 4월에는 동국인 등산대회와 체육대회, 5월에는 야유회, 10월에는 山岳祭를 거교적으로 전국의 명산에서 번갈아가며 열고있다。

4·19학생의거를 기념하여 지난70년부터 개최해온 東國人등산대회는 금년으로 13회째를 맞고 있으며 매년2천여명의 東國人이 이를통해 和合과 협동심을 기르고있다。

또 東國山岳祭는 금년으로 15회째로 매회 2백여東國人이 함께 山行을즐기도록배려하고있다。

「東國山岳」속간준비중

그러나 東國山岳會가 당면한 시급한과제의하나는「東國山岳」誌속간이다。지난70년부터 나오기시작, 74년 제5호가 나온후로 뚝끊긴 會誌에대한 아쉬움이 크다는것이 現회장단의 異口同聲이다。

『과거의 중요사진 자료와 의욕적인 특집、설문조사와 논단등 여느단위산악회의 회지보다 내용이 충실했던것같다』고 말하는 崔榮植회장은『1년에 한번 1백面정도의 冊을 비매품으로 발간한다는 것이쉽지않지만 來年 상반기까지 꼭 속간호를 내놓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제6집 발행을 보조하기 위해 在美회원인 林 燉 李求鎔 박번웅 손수남會員등이 협찬金을 이미 보내온바있다。

선후배가 똘똘 뭉쳐 이끌어지는 東國山岳會는 그 저력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東國을 빛내줄 것이다。

◇歷代회장 명단

▲초대=洪鳳來(53법학·東洋金屬사장)

▲2·3대=崔載九(52국문·前국회經科위원장)

▲4대=李丙疇(51국문·모교文理大교수)

▲제5대=金鎭福(52정치·前국회의원)

▲제6대=金容浩(54사학·前국회의원)

◇現회장단명단(7代)

▲명예회장=崔載九 李丙疇 全奎弘「신·前네팔의상」「비나야」AP통신네팔주재원。

▲지도위원=李載昌 錢昌源 朴秀根 朴東琪 丁奎七 金鍾燮 吳正權 金容好 長好

▲회장=崔榮植

▲부회장=鄭鎭永 林信喆 林燉 총무이사=鄭동문 안준 도창호 석관수 양명수

▲해외이사=이인정 학술기획이사=조인환 조용제 조난대책이사=이영진 안병운 포상징계이사=김규진 이명호 감사=이준영 이영균

◇洪鳳來 초대회장 ◇崔載九 2, 3대회장 ◇李丙疇 4대회장 ◇金鎭福 5대회장 ◇金容浩 6대회장

각종 遠征통해 저력을 과시

시원스럽게 풀어주었고, 3차에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큰희생만 안겨주었던 魔의 마나슬루등정을 우리東國人이 해냈다는데 큰 자부를 갖게했다。

토왕폭 初登기록도

마나슬루 원정대前의 일를 막은 양산DI코스를 初登한이래 80년 10월까지 총18차례의 훈련등반을 통해 12개의 코스를 개척했고, 지금도 매년 전통적인 年例행사로서 OB·재학생이 이암장에서 암벽훈련등반을 해오고 있다。

희양산 암벽초등은 李구용 姜성윤 李영우 金재경 金홍배 金진주등이 해낸 코스難易度Ⅳ급에 전장 2백20m9피치의 희양산암장코스중에 긴코스이다。

각종山岳행사 주관

현재 회원수는 OB및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을 포함, 2백여명에 이른다。교직원회원은 山岳부창설이전의 산악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해서 3년이상의 山行경력이 있으면 入會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同會는 창립후 매월 월례등반을 계속해오고 있고, 또 매년 4월에는 동국인 등산대회와 체육대회, 5월에는 야유회, 10월에는 山岳祭를 거교적으로 전국의 명산에서 번갈아가며 열고있다。

4·19학생의거를 기념하여 지난70년부터 개최해온 東國人등산대회는 금년으로 13회째를 맞고 있으며 매년2천여명의 東國人이 이를통해 和合과 협동심을 기르고있다。

또 東國山岳祭는 금년으로 15회째로 매회 2백여東國人이 함께 山行을즐기도록배려하고있다。

「東國山岳」속간준비중

그러나 東國山岳會가 당면한 시급한과제의하나는「東國山岳」誌속간이다。지난70년부터 나오기시작, 74년 제5호가 나온후로 뚝끊긴 會誌에대한 아쉬움이 크다는것이 現회장단의 異口同聲이다。

『과거의 중요사진 자료와 의욕적인 특집、설문조사와 논단등 여느단위산악회의 회지보다 내용이 충실했던것같다』고 말하는 崔榮植회장은『1년에 한번 1백面정도의 冊을 비매품으로 발간한다는 것이쉽지않지만 來年 상반기까지 꼭 속간호를 내놓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제6집 발행을 보조하기 위해 在美회원인 林 燉 李求鎔 박번웅 손수남會員등이 협찬金을 이미 보내온바있다。

선후배가 똘똘 뭉쳐 이끌어지는 東國山岳會는 그 저력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東國을 빛내줄 것이다。

◇歷代회장 명단

▲초대=洪鳳來(53법학·東洋金屬사장)

▲2·3대=崔載九(52국문·前국회經科위원장)

▲4대=李丙疇(51국문·모교文理大교수)

▲제5대=金鎭福(52정치·前국회의원)

▲제6대=金容浩(54사학·前국회의원)

◇現회장단명단(7代)

▲명예회장=崔載九 李丙疇 全奎弘「신·前네팔의상」「비나야」AP통신네팔주재원。

▲지도위원=李載昌 錢昌源 朴秀根 朴東琪 丁奎七 金鍾燮 吳正權 金容好 長好

▲회장=崔榮植

▲부회장=鄭鎭永 林信喆 林燉 총무이사=鄭동문 안준 도창호 석관수 양명수

▲해외이사=이인정 학술기획이사=조인환 조용제 조난대책이사=이영진 안병운 포상징계이사=김규진 이명호 감사=이준영 이영균

마나슬루 登頂은 山岳界와 온 國民을 통쾌하게한 壯擧

政外科 동문에게

政治外交學科에서는 선후배간의 유대를 공고히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선후배의 밤」을 개최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1982년 11월 13일(土) 오후 4시

장소 : 東大門 이스턴호텔 2층 연회실

회비 : 1만원

東國大學校政治外交學科

우표수집狂

—國際우표展「銀賞」받은 鄭龍談동문

「우표수집에 미친 사나이」。지난 6월11~21일까지 불란서 파리에서 열렸던「PHILEX FRANCE82(국제우표전시회)」에서銀賞을 받은 鄭龍談(61경제·한국投資信託(주) 永東지점장)동문을 두고 주위에서 일컫는 말이다。

「우표」는 그가 반평생을 살아오는동안 한번도 잊어본적이 없는「생활의 동반자」가 되고있다。

『이번 국제우표전에 출품한우표는 1945~1948년 사이에 발행한 우표들로 그 자체가 하나의 歷史이지요』라고 말을 꺼내는 鄭동문은『우표를 통해 歷史·文化·印刷術을 알수있고, 때로는 앉아서 세계관광까지 할수있다』고 자랑한다。

『木浦中 3학년때부터 취미삼아 시작한 우표가 이제는도저히 접狂(?)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鄭동문은 29년째 모은 우표가 자그마치 캐비넷6개에 가득차있다고 스스로 대견해한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우표는 1884년 甲申政變때 우정국설치로 선을 보인 우리나라 최초의우표로부터 표까지 총망라되어있어 신부보다 더 우표史의 산證人이 되고있다。

또 그는 40여개국의 외국우표도 소장하고 있는데 우표뿐만아니라 엽서·封皮까지 수집함으로써 시대의 변천을 읽으려 하고있기도하다。

鄭동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표의 소재는 해방초기에 무궁화·독립문·태극기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점차 歷史的인물과 文化財 動物·植物등으로 소재幅이 擴大되었으며 행사에 主眼한 기념우표도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한다。

鄭동문은 1953년대의 무궁화 外體소인은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요즘은 소인이 획일적이 되어버렸다고 못마땅해한다。

몇몇 학교에서「우표취미수집」에 대한 강연을 갖기도한 鄭동문은 우표를 수집하려는 사람들에게『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꾸준히 해보라』고 덧붙인다。

『많은 우표와 오랜경험에 의해 우표는 물론 사물을 보는 審美眼까지 생겼다』고 말하는 鄭동문은『오는 84년 우리나라에서 국제우표전시회가 열린는 마당에서 우표취미인구가 늘고, 우리의 우표質과 인쇄술이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을 맺는다。

商銀에서 한국投資信託으로 옮겨 감사역 대구지점장등을 지낸 鄭동문은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여가시간을 우표모으는데 모두 할애해 오고 있는 것이다。



30년蒐集…우표통해 歷史·文化등 배워

문리대 文科·理科大로 分離

明年부터 10개單科大로 늘어

83學年度 大學別 學生定員에 따른 母校의 單科大學및 學科改編이 지난 10월5일자로 확정 발표되었다. 改編내용으로는 내년부터 文理科大學이 文科大學과 理科大學으로 분리되는 것을 비롯하여 工科大 工業經營學科가 産業工學科로 변경되며 졸업정원은 慶州大 人文系에 한하여 60명이 증원되었다.

文理大 개편은 현행 國文科등 8個 學科를 文科 大로, 數學科등 4個 學科를 理科大로 분리한 것으로 科大의 설립 불투명에서 오는 폐단을 해소하고 학문 연구발전을 기하자는데 있다.

이로써 모교는 총 9個 單科大學에서 10個 單科大學으로 그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날로 성장 발전하는 校勢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工業經營學科를 産業工學科로 개편한 것은 새로운 技術의 개발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등의 산업 성향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졸업정원은 慶州大 人文系의 英文科와 國史科에 한해 각 30명씩 60명이 증원, 경주대 졸업정원은 총1천1백60명으로 확정되었다.


◇黃총장

母校 黃壽永총장(文學博)

黃壽永총장 建大서 名博학위

母校 黃壽永총장(文學博士)이 지난 9월28일 建國大學校로부터 名譽 哲學博士 학위를 수여받았다.

韓國佛教美術의 泰斗이자 博物館人으로서 알려진 黃총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古美術史 및 考古學과 文化財발굴및 보호사업, 敎育발전에 대한 공로로 이날 학위를 받은 것이다.

教員53·職員66%만「佛教」

東國學院山하 각급學校 종교실태 조사

학교법인 東國學院 제 육과 중등교육, 초등교육 55차이사회에 보고된 「법인산하 敎職員宗敎실태조사」에 따르면 모교敎員의 52·7%가 「佛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무국에서 「불교적 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종교실태 조사는 東大附高는 교원93%, 직원1백%, 明星女高는 교원88%, 직원75%, 明星女中은 교원이 67%, 직원 1백%가 「佛敎」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조사는 불교 이념으로 설립된 각급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건학 이념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좋은자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9개교 교원은 1백% 불교도이고, 원 9월1일자 동국학원산하 동국대학교 총9백95명, 직원3백66명 등 총9백65명을 대상으로 佛敎·기독교·천주교 천도교·기타등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9%만이 「佛敎」인 것은 전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북 金山中高, 경남 弘濟中, 恩光國校의 교직

추어 약구선수권대회」에서 결승 3점 홈런으로 韓國 우승에 최고 수훈을 세운 韓大化(體敎科·4년) 선수가 지난 9월21일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巨象章」을 수여 받았다.

大學人事

▲黃寶永(불교대인철과) 교수=任 新羅文化研究所長
〈8月2日字〉
▲金長好(사법대학장) 교수=任 敎育問題研究所長

▲金直泰(공과대학공과) 교수=任 産業技術研究所長
〈以上 9月1日字〉

◇訂正=지난 75호 8면하단 광고 「現代班여관」의 전화번호를 「해인사144번」으로 바로 잡읍니다.

司試합격자 祝賀宴

최종 6명에게 기념패

「제24회 司法考試합격자 축하연」이 지난27日 오후 모교 학도호국단 주최로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식은 朴先榮학생처장 격려사, 閔丙天고시지도위원장 (법정대학장) 축사, 합격축하 기념패증정순으로 진행되었는데 朴昇圭(77법학) 동문은 답사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격려해준 가정·모교·사회에 감사하며 미력이나마 후배를 돕는 일에도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식후에는 합격자·재학생간의 질의응답순서도 가졌는데, 최종합격자는 朴昇圭(77법)丁滿鎭(78법) 鄭泓德(79법)金東雨(82법) 洙哲(대원) 姜昶遠(행원) 등 6명이다.


◇결승진출다름인 對東亞大戰 9回初 고의四球와 적실로 3루까지나간 4번韓大化군(左)이 6번 李建烈의 내야땅볼로 결승점을 올리고있다.

野球部 또 準優勝

제37회 大學野球選手權 대회서

母校 野球部(감독=金賢植)는 지난 10월28일 서울운동장에서 폐막된 「제37회全國大學野球選手權大會」 결승전에서 仁荷大를 맞아 선전했으나 아깝게 져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다.

1만여 同門, 재학생들의 열띤 응원속에 벌어진 이날 결승 경기는 4회 무사 2·3루등 여러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후속타 불발로 놓치고 5회초 오히려 2점을 허용, 9회말 金曼浩의 솔로 홈런 보탬 없이 2대1로 분패했다.

금년도 大學野球를 총결산하는 이번대회에는 총16개팀이 출전, 토너먼트로 자웅을 겨뤘는데 모교는 中央大에 7대4, 성균관大에 4대3, 東亞大에 3대2로 각각이겨 결승에 올랐었다.

이 大會에서의 개인상은 姜政男(좌익수)군이 감투상, 金平鎬(중견수)군이 최다안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모교는 지난 4月의 大統領旗 준우승및 이번대회 준우승으로 금년시즌서 두차례나 정상문턱에서 우승이 좌절되었다.

農大도서관 設置검토

在日 楊致光씨 재정지원

母校 農大전용도서관 설치를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65년부터 모교 農大발전을위해 3천여권의 계서적을 기증해온 楊致光씨가 지난10월 1일 渡日한 金興培農大學長편에 재정적지원을 약속한것. 이를위해 모교에서는 黃壽永총장이 年內로 楊씨를 방문하여 제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용도서관 설치는 그동안 楊氏의 기증으로 투어진 도서관 1층의 「楊致光 문고」의 활성화를위한 것으로 楊씨는 도서관 설치의 재정적협조는 물론 앞으로 5~6년내에 農業서적 2~3만권의 기증과 함께 실험실습기자재 충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관장

博物館長李龍範교수

母校 달구은 그동안 黃壽永총장이 겸직하고 있던 博物館長에 李龍範(文理大·史學科) 교수를 임명 발령했다.

本會서 30만원

모교野球部격려

본회는 지난28일 제37회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의 善戰을 격려하기위해 李英駿체육담당부회장이 서울운동장야구장까지 직접 나가 금일봉 (3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大會를 격려하기위해 도선사주지 현성스님이 1백만원을 내놓았으며, 야구후원회는 야구부감독및 코치에게 각각 금일봉을주어 노고를 치하했다.

「華嚴思想」다뤄

佛敎文化硏 20周세미나

佛敎文化硏究所 (소장=洪庭植) 창립20돌기념 학술세미나가 지난 29·30일 양일간 「華嚴思想의 한국적전개」를 주제로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려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불교敎學의 최고·최상의 경전인 화엄경의 이상을토대로 한 이세미나는 전국각지에서 23명의 교수들이 참가, 11명이 주제연구를 발표하고 12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제1일째 (29일)
▲金煐泰 (東大) ‖三國遺事에 보이는 華嚴사상 ▲高翊晋 (東大) ‖원효의 화엄사상 ▲蔡印幻 (東大) ‖義湘화엄교학의 특성 ▲金仁德 (화엄대학) ‖表員의화엄학 ▲金杜珍 (국민대) ‖均如화엄의 史的의의 ▲崔炳憲(서울대) ‖한국화엄사상사에 있어서의 義天의위치 ▲李鍾益(益東大) ‖普照禪과 화엄

◇제2일째 (30일)
▲睦楨培(東大) ‖雪岑의法界圖注考 ▲蔡尙植 (부산대) ‖體元의 저술과 화엄사상 ▲李英茂 (건국대) ‖蓮潭私記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의

韓大化군에

體育훈장 巨象章

「제27회 서울 세계아마

會費入金現況

◇常務理事會費
▲金 愚(51국문) ‖10만원(一部金)
▲安秉浩(79행원) ‖20만원
▲申鉉泰(57경제) ‖〃
▲金榮煥(62경제) ‖〃
▲朴忠煥(59경제) ‖〃
▲安채蘭(54국문) ‖〃
▲秋東憲(68대원) ‖〃
▲洪淳池(52정치) ‖〃
小計=1백50만원
累計=4백25만원

◇理事會費
▲金敎根(65경영) ‖5만원
辛承吉(63경제) ‖〃
▲李寬淳(64영문) ‖〃
朴東憲(64영문) ‖〃
▲吳 椿(51정치) ‖〃
▲裵弼洙(82경원) ‖1만원
崔基元(64영문) ‖5천원
▲梁炳鎬(64영문) ‖〃
▲池昌敦(52경제) ‖〃
閔雄植(57국문) ‖〃
▲朴鍾在(59경제) ‖〃
▲李俊邦(79행원) ‖〃
▲李準雨(72법학) ‖〃
石明洙(74행원) ‖〃
▲具永學(68행원) ‖〃
▲吉 增(72행원) ‖〃
辛翔敎(52경제) ‖〃
▲梁正五(81행원) ‖〃
▲金益謙(60법학) ‖〃
▲姜源植(64영문) ‖〃
金東日(72행원) ‖〃
▲盧瑞鳳(80경원) ‖〃
▲許 煜(60영문) ‖〃
玄海宗(62경제) ‖〃
鄭炳樂(67경행) ‖〃
▲田炳祿(55경제) ‖〃
白秉完(63농학) ‖〃
▲任淸宰(81사학) ‖〃
▲金德壽(65행정) ‖1만원
許應灃(73경영) ‖5천원
辛承洙(72경영) ‖〃
▲金炳宇(69생물) ‖〃
林宗憲(81영문) ‖〃
▲梁泰仁(71법학) ‖〃
鄭址燦(58경제) ‖〃
▲李領淳(69농경) ‖〃
▲金 峻(69식공) ‖〃
▲尹靑光(63영문) ‖〃
朴正道(77경행) ‖〃
▲梁海仁(82경원) ‖〃
▲趙明鎬(75경행) ‖〃
成樂根(74경영) ‖〃
▲申奏湜(57국문) ‖〃
▲崔世衡(61국문) ‖〃
▲宋大用(72위공) ‖1만원
金容植(78체교) ‖5천원
▲申鉉泰(62경제) ‖〃
▲金榮煥(62경제) ‖〃
朴忠煥(59경제) ‖〃
▲安채蘭(54국문) ‖〃
▲秋東憲(68대원) ‖〃
洪淳池(52정치) ‖〃
小計=1백50만원
累計=4백25만원

◇年會費
〈團體納付分〉
▲國土開發硏究院(方乘武外4人) ‖2만5천원
▲大韓住宅公社(梁有彬外3人) ‖2만원
▲釜山支部(회장=金容彩) ‖10만원 (2차분)
▲農心(유정外17人) ‖4만5천원

〈個人納付分〉
▲朴貴福(60국문) ‖5천원
▲朴元男(63국문) ‖〃
▲兪正穆(61물리) ‖〃
▲宋錫滉(78수교) ‖〃
▲李仁眞(행정) ‖〃
▲金金龍(78국문) ‖〃
李永海(70상학) ‖〃
▲金元明(61법학) ‖〃
▲李炳哲(72국문) ‖〃
▲趙田煥(76통계) ‖〃
▲林鍾奎(69정외) ‖〃
▲金聖圭(60경제) ‖1만원
▲吳春煥(57사학) ‖5천원
許湘九(79경원) ‖2만원
▲朱廷均(60법학) ‖5천원
▲李愚喆(79대원) ‖〃
▲金鎭雄(77국교) ‖〃
▲李英淳(64상학) ‖〃
▲宋錫祀(60사학) ‖〃
朴性奎(78체교) ‖〃
▲洪杜燦(62경제) ‖1만원
▲金泰秀(76경제) ‖5천원
▲李聖馥(65상학) ‖1만원
▲金明河(74정치) ‖5천원
▲方周錫(66불교) ‖1만원
李正熙(64법학) ‖5천원
▲鄭相泳(61사학) ‖〃
▲高應三(77행원) ‖〃
李平根(69법학) ‖1만원
李信坤(59법학) ‖5천원
▲邊昌男(61영문) ‖1만원
▲金容相(76행원) ‖5천원
▲金哲洪(80국교) ‖〃
▲李敏鎭(56경제) ‖〃
朴性協(51사학) ‖〃
▲朴用誠(68법학) ‖〃
▲權功殷(결영) ‖〃
鄭求昌(72경제) ‖〃
▲曺聖鉉(78토목) ‖〃
曺明煥(79건축) ‖〃
▲韓昌錫(74정외) ‖〃
▲金顯龍(77토목) ‖〃
▲金鎭元(65경영) ‖〃
孫琴植(82공경) ‖〃
▲李龍鳳(77전자) ‖〃
▲李華永(73행정) ‖〃
文武一(77경제) ‖〃
▲李根厚(62경제) ‖〃
▲金泰敎(52정치) ‖〃
小計=64만5천원
累計=6백43만5천원

◇會報廣告協贊金
▲尹靑光(70호) ‖5만원
▲崔性安(75호) ‖10만원
累計=27만원
小計=15만원
▲林鍾奎(69정외) ‖〃
▲金聖圭(60경제) ‖1만원
▲吳春煥(57사학) ‖5천원
許湘九(79경원) ‖2만원
▲朱廷均(60법학) ‖5천원
▲李愚喆(79대원) ‖〃
▲金鎭雄(77국교) ‖〃
▲李英淳(64상학) ‖〃
▲宋錫祀(60사학) ‖〃
朴性奎(78체교) ‖〃
▲洪杜燦(62경제) ‖1만원
▲金泰秀(76경제) ‖5천원
▲李聖馥(65상학) ‖1만원
▲金明河(74정치) ‖5천원
▲方周錫(66불교) ‖1만원
李正熙(64법학) ‖5천원
▲鄭相泳(61사학) ‖〃
▲高應三(77행원) ‖〃
李平根(69법학) ‖1만원
李信坤(59법학) ‖5천원
▲邊昌男(61영문) ‖1만원
▲金容相(76행원) ‖5천원
▲金哲洪(80국교) ‖〃
▲李敏鎭(56경제) ‖〃
朴性協(51사학) ‖〃
▲朴用誠(68법학) ‖〃
▲權功殷(결영) ‖〃
鄭求昌(72경제) ‖〃
▲曺聖鉉(78토목) ‖〃
曺明煥(79건축) ‖〃
▲韓昌錫(74정외) ‖〃
▲金顯龍(77토목) ‖〃
▲金鎭元(65경영) ‖〃
孫琴植(82공경) ‖〃
▲李龍鳳(77전자) ‖〃
▲李華永(73행정) ‖〃
文武一(77경제) ‖〃
▲李根厚(62경제) ‖〃
▲金泰敎(52정치) ‖〃
小計=64만5천원
累計=6백43만5천원

◇會報廣告協贊金
▲尹靑光(70호) ‖5만원
▲崔性安(75호) ‖10만원
累計=27만원
小計=15만원

「東西思想의만남」

鄭종박사정년論文集

모교 철학과에서 20여년간 몸담고 있다 정년퇴임한 鄭종(38中佛) 동문의 學德을 기리는 정년논문집 「東西思想의 만남」이 나왔다.

이 논문집은 대개 후학들의 기고로 꾸며지는 관례를 깨고 우리나라 철학계의 다수중진들이 동서철학의비교론적 입장에서 집필했다.

한국철학 중국철학 일본철학 구미철학 비교철학 교육철학 비교문학사상등의 編次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西勢東漸」의 추세에서 오늘날 정신적으로 「西心東傾」하는 세계철학계의 동향을 살필수있도록 했다.

<非賣品>

「文學과思想과人生」

趙演鉉동문遺著

지난해 日本 東京에서 여행중 작고한 韓國文壇의 元老 文學評論家인 趙演鉉 (42해전) 동문의 유고, 수상록·故人이 생전에 책으로 묶어내려 직접 편집까지 해두었던 것을 死後에 尹在根, 吳學榮, 감태준등 後學들이 다시 엮어서 펴냈다.

이 책에는 「나의文學」 「宗敎」 「新聞에 대하여」등 故人의 人生 文學 藝術觀등을 피력한 77편의 글과 文壇回憶錄등이 수록되어 있다. <文學世界社刊·3천2백원>

新刊안내

「스승 그 끝없는 손길」

김성배 정년기념문집

聖峯 김성배 (51국문) 동문의 정년퇴임을 기리는 기념 문집 「스승, 그 끝없는 손길」이 出刊되었다.

일제때인 1937년 처음 교단에 오른지 45개성상을 오직 후진양성에 몸바치다 지난 8월 모교에서 정년퇴임한 김동문의 업적을 많은 제자·문하생들이 글로모아 엮은 것이다.

제1부 제자들이 선생님을 시와 시조, 제2부 제자들의 수필, 제3부 제자들의 편지글등 6부로나누어진 이책은 제자들의 스승에대한 애틋한 정과 사연등 스승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김동문의 단면을 잘그려주고 있다.

<성봉선생정년퇴임기념문집간행회刊·5천원>

「韓國佛敎史硏究」

安啓賢동문遺著

모교史學科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作故한 安啓賢 (52사학) 동문의 遺著 「韓國佛敎史硏究」가 死後1년만에 족과 동료들의 주선으로 출간되었다.

국내史學界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新羅와 高麗의 思想史 분야를 꾸준히 개척해 왔던 安동문은 이미 생전에 「新羅淨土思想史의 硏究」 「新羅古代佛敎史」등의 저서를 냈었으며 이번遺著는 韓國佛敎전반을 다룬것이다.

總論에이어 新羅·高麗의 佛敎와 「排佛下의 朝鮮佛敎」를 전체 4개章에나누어 서술하고있다. <同和出版公社刊·5천8백원>

「流刑의 땅」

趙 廷 來同門

「선생님 紀行」으로 데뷔한뒤 10여년 동안 많은 문제작들을 발표하여 文壇의 주목을 끌었던 趙廷來 (66國文) 동문이 그의 중편소설들만 모아서 펴낸 책이다.

한 人間의 운명적 비극과 뼈아픈 恨을 그려 82年 「現代文學賞」을 받은 「流刑의 땅」을 비롯하여 「비둘기」 「길이 다른 江」 「미운 오리새끼」 「장님 외술타기」 「사랑의 벼랑」등 6편이 수록됐다.

<文藝出版社刊·3천원>

1983學年度 東國大學校 신입생모집 요강

서 울 本 校

1. 모집구분및 인원

대학	계열구분	학과	졸업정원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야간강좌
불교대학	인문	불교학과	40	52	52		
		인도철학과	20	26	26		
		선학과	20	26	26		
	예·체능	미술학과	40	52	52		
문과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40	52	52		
		영어영문학과	100	130	130		65
		독어독문학과	30	39	39		
		일어일문학과	30	39	39		
		사학과	30	39	39		
		철학과	30	39	39		
		국민윤리학과	40	52	52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30	39	39		
이과대학	자연	수학과	40	52	52		
		물리학과	40	52	52		
		화학과	40	52	52		
		통계학과	40	52	52		
법정대학	사회	법학과	60	78	78		
		정치외교학과	30	39	39		
		행정학과	40	52	52		
		경찰행정학과	30	39	39		
		사회개발학과	30	39	39		
경상대학	사회	경제학과	90	117	117		65
		무역학과	120	156	156		104
		경영학과	140	182	173	9	121
		회계학과	120	156	18	8	96
	자연	전자계산학과	120	156	156		104
농과대학	자연	농학과	30	39	37	2	
		임학과	30	39	37	2	
		농업생물학과	30	39	37	2	
		농업경제학과	30	39	39		
공과대학	자연	전자공학과	40	52	49	3	
		전기공학과	30	39	37	2	
		토목공학과	40	52	49	3	
		건축공학과	40	52	49	3	
		화학공학과	30	39	37	2	
		식품공학과	35	46	44	2	
		산업공학과	90	117	117		78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40	52	52		
		사회교육과	50	65	65		
		교육학과	40	52	52		
		지리교육과	40	52	52		
	자연	수학교육과	45	58	58		
		가정교육과	40	52	52		
	예·체능	체육교육과	40	47	52	5	

경 주 大 學

대학	계열구분	학과	졸업정원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야간강좌
경주대학	예·체능	불교미술학과	40	52	52		
	인문	국어국문학과	100	130	130		
		영어영문학과	130	169	169		
		일어일문학과	50	65	65		
		중어중문학과	40	52	52		
		한문학과	40	52	52		
		국사학과	90	117	117		
	사회	법학과	60	78	78		
		행정학과	60	78	78		
		경제학과	90	117	117		
		무역학과	85	111	111		
		경영학과	90	117	111	6	
		회계학과	85	110	103	5	
	자연	환경조경학과	40	52	52		
		한의예과	80	104	104		
		수학교육과	40	52	52		
		가정교육과	40	52	52		

2.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졸업자 (졸업예정자포함) 로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거친자.

나. 고등학교졸업학력고사에 합격한자로서 대학 입학학력고사를 거친자.

다.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외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하여 졸업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3. 전형방법

가. 인문·사회계열및 자연계학과의전형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다음의비율로 배점하여전형한다.

구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합계
비율	70%	30%	100%
배점	340점	145·7점	485·7점

나. 예·체능계학과의전형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고등학교내신성적및 실기고사성적을 다음의비율로배점하여전형한다.

①미술학과

구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	합계
비율	20%	30%	50%	100%
배점	340점	510점	850점	1,700점

②연극영화학과·체육교육과

구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	합계
비율	30%	30%	40%	100%
배점	340점	340점	454점	1,134점

①서울본교 미술학과의 실기고사는 공통실기와선택실기로 구분하며, 공통실기는 모두 석고뎃상으로 하고 선택실기는 수채화, 채석화, 조소, 정밀묘사로한다。경주대학 불교미술학의 실기고사는 공통실기와 선택실기로 구분하며 공통실기는 석고뎃상으로하고 선택실기는수채화, 채색화, 정밀묘사중 택일한다。실기고사의성적은 공통실기 400점, 전공 (불교미술학과는 선택) 실기는 450점으로 배점한다。

②연극영화학과의 실기고사는 화술, 연기, 용모, 감정테스트및 예능상식으로 한다。

③체육교육과의 실기고사는 일반체능고사와 기능고사로한다。

다. 특별전형

①농업·공업·상업계열의 1983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그성적순위가해당출신 고교졸업자의 30%이내인자로 동일계학과에응시할경우, 그 모집인원의 5%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허가한다。

②체육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체육교육과에 응시할경우, 모집인원의 10% 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4. 복수지망

㉮복수지망 :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구분, 동일계열에 한하여 제3지망까지 허용한다。예·체능의 복수지망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원서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울본교

①원서교부 : 1983·1·5 (수) ~ 1·12 (수)

②원서접수 : 1983·1·8 (토) ~ 1·12 (수) 오후 6 : 00까지

㉮우편접수는 1월12일 (수) 오후 6 : 00시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하여접수함。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같이 입학원서교부및 접수함。

③교부및접수처 :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6번지 동국대학교 교무과。

나. 경주대학

①원서교부 : 1983·1·5 (수) ~ 1·12 (수)

②원서접수 : 1983·1·8 (토) ~ 1·12 (수) 오후 6 : 00까지

㉮우편접수는 1월12일 (수) 오후 6 : 00까지 도착한 원서에한하여 접수함。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같이 입학원서교부및 접수함。

③교부및접수처 : 경북월성군현곡면금장리 동국대학교경주대학 교무과。

6.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매

㉯학교장추천서 (사범대학지원자에한함) 1매

7. 전형일시(서울본교, 경주대학동일함)

가. 수험생전체예비소집

1983·1·14 (금) 오전10시

서울본교 : 서울본교 대운동장

경주대학 : 경주대학 대운동장

나. 전체전형 (면접)

1983·1·14 (금) 오후1시

서울본교 : 서울본교 각고사장

경주대학 : 경주대학 각고사장

다. 예체능계실기고사

①대상자예비소집 : 1983·1·16 (일) 오전10시

서울본교 : 서울본교중강당

경주대학 : 경주대학소강당

②비공동 관리학과실기고사 : 1983 1 ·· 17 (월) ~ 1·18 (화) 오전10시

③공동관리학과 실기고사 : 1983·1·17 (월) ~ 1·17 (월) ~ 1·24 (월) 오전10시

8. 합격자 발표

1983년 1월21일 (금) 오후 4시 (예·체능계는추후결정)

9. 기 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본교교무과 (272—8723) 및 경주대학 교무과 (2—0131—5) 로문의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 TEL(267)8131~9

경주대학 :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707 TEL 0561②0131~5

東 國 大 學 校